정보관리연구, vol. 34, no. 3, 2003, pp. 41-67

# 디지털 환경에서 도서관목록의 유용성

# A Study on the Utility of Library Catalogs in the Digital Environments

노 지 현*

**Jee-Hyun Rho**

차 례

1. 서 론
2.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서관목록
3.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논의
4. 유용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방안
5. 결 론
• 참고문헌

## 초 록

이 연구는 도서관목록의 역할과 기능이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면서 그 본래의 가치보다 훨씬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단계 도서관목록이 안고 있는 각종‘ 부실’을 제거하고‘ 유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작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논리적 경로로써 그동안 도서관목록은 본연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이 연구는 우리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이 저하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다음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편목 정책과 실무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키 워 드

목록, 편목, 도서관목록, 유용성, 만족도, 정보조직, 자료조직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Lecture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ept., Pusan National University, rhgjee@hanmail.net)
· 논문접수일자 : 2003년 9월 9일
· 게재확정일자 : 2003년 9월 18일

**ABSTRACT**

With the rapid and broad changes of information ecology human information activity is moving toward a new pattern-networking.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networks are being constructed over the world, and through the networks various forms and contents of information are being flowed or transferred. Under these circumstances a serious question could arise regarding whether the present cataloging principles and practices are right and appropriate for the so-called' digital network generation of library users'. This study was developed to explore this question. Especially,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on the utility of library catalog with an emphasis on the perspectives of library users.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the quality of library catalogs produced by Korean universities was in a very low standar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n the quality was very low, particularly among library users. In conclusion, this study made several suggestions on the cataloging policy and practices: both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unit library level.

**KEYWORDS**

Catalog, Cataloging, Library Catalog, Utility, Information Organization

## 1. 서 론

해방 이후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는' 양'과' 규모' 그리고' 형식'에 대한 강조이다. 이러한 양적 성장 중심의 국가발전 전략을 통해 우리가 이룩한 외형적 성장은 그야말로 눈부신 것이었다. 특히, 경제 분야의 성장은 개발도상국의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혁혁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반세기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경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인한 폐해 또한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내실있는 성장을 소홀히 한 대가로 우리 사회는 지금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철학과 사상 그리고 윤리 등 사회의 정신적 기초가 단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에 치우쳐 정신적 기초를 다지는 일에 소홀히 하여 왔다. 이 점에 있어서는' 지식과 정보의 건강한 유통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관'인 도서관도 예외가 아니다. 비록 도서관의 수가 점진적으로 늘고 개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도서관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흔적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도서관이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수집한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안내 도구를 만들어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처럼 도서관에서 생산하는 목록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전문화하고 사서의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도서관 정책이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니, 도서관목록 또한 양적인 측면의 개발에 치우쳐 내용적 품질이 매우 부실해져 있다. 우리의 도서관 정책입안자들이나 도서관 관리자들은 단시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려고 하고, 이러한 경영방침이 지배적이다 보니 도서관의 편목사서들은 납품 기일에 맞춰 물건을 찍어내듯 졸속적으로 목록을 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목록 생산의 실적이나 통계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품질면에서 과연' 제대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은 새로운 메타데이터의 도입과 적용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식정보자원을 왜 그리고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와 목적을 이해하기에 앞서, 여전히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진지한 성찰과 반성보다는 무비판적으로 최신 경향을 도입하려는 성급함이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목록을 생산하는 일이 고도의 지적 분석과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공식을 대입하는 것과 같이 기계적인 작업에 불과하다는 우리 도서관 현장의 고질적인 오해와 편견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도서관은 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는커녕 방향성을 잃고 헤매게 될 수도 있다. 바로 여기에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 연구는 도서관목록의 역할과 기능이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면서 그 본래의 가치보다 훨씬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단계 도서관목록이 안고 있는 각종' 부실'을 제거하고' 유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작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논리적 경로로서 그동안 도서관목록은 본연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외부 환경의 변화 앞에서 현재 직면한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내실있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 2. 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서관목록

Buckland(1992)는 지난 50년간 우리 도서관계에 등장한 도서관의 개념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 제1세대 : 도서관의 업무처리 방식과 소장자료가 모두 종이 매체(paper, cardboard)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

(Paper Library)

- 제2세대 : 도서관의 업무처리 방식에는 새로운 정보기술이 도입되어 전산화가 추진되었지만 소장자료는 여전히 종이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 (Automated Library)
- 제3세대 : 업무처리 방식의 전산화와 더불어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디지털 기반 전자도서관 (Electronic Library)

그의 구분에 의하면 현재는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된 도서관 소장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제3세대 도서관의 모형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금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진행된 컴퓨터에 의한' 도서관 자동화'와는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따라서 제1세대, 제2세대의 서비스 마인드가 아닌 제3세대에 적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관목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제1세대와 제2세대 도서관의 정체성이 보다 많은 자료를 소유하여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데 있었다면, 제3세대는' 접속의 시대'로서' 소유'의 개념이 점차 파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제1세대와 제2세대의 도서관목록이 단순히 도서관이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서가의 어느 위치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었던 반면, 제3세대에 이르러서는 도서관을 통해 무엇에 ' 접근'할 수 있는지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전통적인 환경에서의 도서관목록은 적절한 통제와 조직을 통해 소장자료에 대한 심도있고 폭넓은 접근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목적에 덧붙여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속점'으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서관을 거대한 정보네트워크의 노드로 보고자 하는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에게 도서관목록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리스트가 아니라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검색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단계 도서관목록은 소장자료 위주의 단순 정보제공이 아니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갈망하는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 형태로 변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형태의 목록(OPAC)이 가지고 있는 ' 태생적 한계'를 돌이켜보면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의 도서관목록은 과거 카드목록의 내용을 디지털화한 것에 DIALOG나 Medline과 같은 정보검색시스템의 기능을 흉내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록의 검색기능과 인터페이스 기능이 그 유용성을 인정받은 훌륭한 검색시스템 모델로부터 차용되었다하더라도 레코드의 구조나 내용은 여전히 카드목록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Borgman 1996).

이러한 배경에서, IFLA에서는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FRBR)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개념적 기반'을 재구성하기 위한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서지레코드는 어떤 데이터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data content)와 " 이용자들의 내용적, 물리적 접근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서지데이터는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하는가"(record structure)와 같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Murtomaa 1998). 이 과정에서 모든 지식정보자원은 실체(entities)와 속성(attributes), 그리고 관계(relationships)로 재정의된다. 이 중' 실체'란 이용자의 주된 관심의 대상인 객체(object)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다양한 표현방식(expression)과 구현방식(manifestation)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작품은 하나의 <실체>이며, 이를 번역하거나 개정, 각색한 모든 자료들은 <표현방식>으로, 그리고 단행본이나 CD-ROM, 웹 사이트 등 각기 다른 매체에 담아 전달되는 자료들은 <구현방식>으로 정의되어 서로 묶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구분하기 위한 데이터가 <속성>이며, 각 저작들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장치가 <관계>인 것이다. 다양한' 실체'와 다양한' 속성'을' 관계'를 통해 입체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자유롭게 ' 네비게이션'(navigation) 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네비게이션'이란 기존의' 저자, 서명, 주제명'을 통한 접근방법을 탈피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서지 DB를 탐색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즉,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와 전통적인 서지기술법을 분석하여, 이용자들이 한 저작과 관련된 저작들을 찾을 수 있도록, 특히, 동등관계, 연상관계, 계층관계 등을 활용하여 관련된 속성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기능을 의미한다(Svenonius 2001). 이것은 전통적인 환경에서의 도서관목록이 동일한 실체에 대해 다수의 레코드를 생성함으로써 서지 DB의 활용과 운용을 어렵게 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도서관목록은 정보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소장자료를 안내해 주기 위한 일람표(inventory list)라는 개념으로부터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개해 주는 것(information gateway)으로 확대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네비게이션'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그 업무도 간접적이고 기술적인 서비스(technical services)로부터 접근 서비스(access services)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Norgard et al. 1993).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서관목록은 여전히 단위도서관이 무엇을 소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정태적이고 수동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다. 오히려, 편목 업무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특정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재현시키는 단순한 과정으로 폄하되면서 도서관의 핵심 업무에서 점점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있고, 도서관목록은 디지털을 기저로 하는 오늘날의 정보생태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전근

대적이고 구태의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만큼 현단계 도서관목록은 도서관 목록이용자로부터‘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 도서관목록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내 보일 필요가 있다.

## 3.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논의

### 3.1 유용성이란 무엇인가?

도서관에서 생산한 목록의 가치를‘ 생산’과‘ 이용’으로 구분해 보면, 여기에는 각기 다른 가치 기준이 존재한다. 목록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생산 과정에서 소요된 생산비용과 노동에 대한 가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목록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실제 이용의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사용 가치에 대한 기준이 존재할 것이다. 또한, 목록생산자들은 일종의‘ 상품’으로서 도서관목록이 가지는 객관적인 품질에 궁극적인 가치를 둘 수 있지만, 목록이용자들은 목록을 이용한 결과로서 얻게 되는 실질적인‘ 만족도’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이처럼, 목록을 생산하는 생산자 집단과 목록을 이용하는 이용자 집단이 도서관목록이라는 동일한 실체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그들이 직접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록생산자의 입장을 강조하게 되면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완전성과 같은 데이터 자체의‘ 무결성’과 데이터의 연계성이나 유연성과 같은‘ 기술적 우수성’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 반면, 최종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보다는 그들의 정보요구를 해결하는데 있어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목록생산자인 사서에게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형식적 완전성’이 중요하지만, 목록이용자들에게는 이보다는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유용한지의 여부, 즉‘ 내용적 유용성’이 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1] 따라서 한자의 오자도 없이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거나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데이터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때 갱신하는 것이 목록생산자에게는 도서관목록의 품질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용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자체만으로 곧 품질이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연구에서는 목록생산자보다 목록이용자의 관점을 중시하여 그들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용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유용성’의 개념은‘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해결하는데

1) 이 내용은 실제 대학도서관에서 목록을 생산하는‘ 편목사서’ 112명과 대학도서관의 목록을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이용자’ 162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결과에 근거한다.

기여하는 정도'로 정의된다. 즉, 도서관 이용자가 정보와 관련하여 봉착하는 문제를 도서관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할 때 목록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유용성'으로 간주한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품질(quality)'이 목록의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상태를 측정하여 품질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데 목적이 있다면, 유용성은 이러한 품질을 분석하기 위한 실증적인 기준이 된다.

유용성의 개념을 그동안 우리의 목록이 본연의 역할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검증해 보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도서관목록을 이용하였을 때 이용자가 얻는' 사용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있다.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특정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면보다 자신의 기본적 욕구를 얼마나 충족해 주는가와 같은 질적인 면이 더욱 중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똑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최대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목록이용자들뿐만 아니라 투자한 결과물에 대해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도서관경영진의 입장에서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서관목록의 품질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목록생산자나 목록전문자의 관점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2]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목록이 얼마나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 3.2 우리의 도서관목록은 유용한가?

' 유용성'의 개념은 다분히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 만족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정확하게 측정해 낼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은 목록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목적에 근거하여 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실증적으로 검증될 수 있다. 도서관목록은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검색해 내고, 더불어 이 속에서 이용자가 보다 원하는 자료를 선별해 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도서관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들이 도서관목록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목적을 직접 조사해 보았다. 인터뷰는 11개 대학도서관의 이용자 52명을 대상으로, 그리고 설문조사는 2개 대학도서관에서 도서관 이용실적이 가장 우수한 이용자 각 1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

2) 1990년대 이후 목록의 품질 관리(Total Quality Management; TQM)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도서관목록에 대한 관심이 데이터의 양적 증가와 규모의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는 품질 향상을 통한 질적 발전과 이용자층의 만족 제고와 같은' 안정화'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들 연구를 분석해 보면,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느냐와 같은 데이터 자체의 품질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서비스의 품질은 일부 극소수의 연구에서만 발견할 수 있어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무시되거나 혹은 경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서비스의 품질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성 및 인터페이스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어, 이용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정보요구를 해결하고자 할 때 목록이 혹은 목록에 기술된 내용이 얼마나 유용하게 이용되는지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의 이용자들은 도서관목록을 통해 원하는 자료를 망라적으로 탐색해 내고, 그 중에서 그들의 정보요구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해 내기 위한 두 가지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유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해 보면, ①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자 할 때 도서관목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포괄성)와 ② 탐색된 결과 가운데 적합한 자료인지를 식별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원자료의 속성에 대한 기술이 상세한지(상세성) ③ 도서관목록에 포함된 데이터 필드와 데이터가 원자료의 속성을 완전하게 대체하고 있는지(완전성) 그리고 ④ 원자료의 물리적 속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정확성)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실제 우리 도서관이 생산한 목록을 검증해 본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3] 포괄성이나 상세성, 완전성, 정확성 모두에서 도서관목록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할 때나 검색결과 중에서 그들의 정보요구에 일치하는 자료를 찾아낼 때 모두 '유용성'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상세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곧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적합한 자료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가 도서관목록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4가지 기준 중에서도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록이용자들의 관점에 비추어볼 때, 현단계 도서관목록은 내용적 불충분으로 인해 유용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노지현 2003).

이처럼, 우리의 도서관목록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서조차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다보니 도서관목록은 원자료에 대한 대체물(surrogates)로서 이용자가 원자료를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용자가 느끼는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심지어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도서관목록의 '존재 가치'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근본 문제를 그대로 덮어둔 채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또 다른 것을 추구하다보니 혼란과 갈등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목록이 이처럼 '부실'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목록을 생산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서관이용자들에게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도서관목록에 대한 목록생산자와 목록이용자의 관점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목록생산자 그룹과 목록이용자 그룹에 대한 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목록을 생산

3) 실제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표본도서관은 국립대학도서관 3개관과 사립대학도서관 3개관이었다. 이들은 도서관장서와 규모, 예산, 직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내 대학도서관 중 최상위 그룹에 해당된다.

하는 편목사서들은 외형적으로 완벽한 형태를 갖춘 목록을 생산하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었다. 그 결과 데이터의 정확성이나 형식의 완전성과 같은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할애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의 편목사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편목사서들이 목록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요구를 도서관목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을 수록하면 되는지'(42명/37.5%)보다' 정해진 규칙과 형식에 따라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70명/62.5%)였다.

반면, 목록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외형적인 체제의 완벽성보다는 도서관목록에 수록된 내용이 얼마나 상세한지,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가 얼마나 수록되어 있는지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이처럼, 도서관목록에 대한 이들 두 그룹의 인식이 상이하다보니, 목록을 생산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록을 이용하는 최종이용자들은 도서관목록을 유용한 도구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과제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시도보다, 현단계에서 발견되는 각종' 부실'을 제거하고' 유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를 위한 논의는' 부실'을 초래한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적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이란 기껏해야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저하시킨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 보았다.

### 3.3 유용성 저하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 3.3.1 목록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왜곡

앞서도 강조했듯이, 도서관목록의 본질적 가치는 한마디로 도서관이용자가 문헌정보의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막연함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데 있다. 도서관목록을 통해 도서관이용자는 거대한 문헌정보의 덩어리 속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찾게 된다. 정태적이고 객관적인 상태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정보자원이 도서관목록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도서관이용자의 지식 체계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이고 주관적인 실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목록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도서관이용자의 정보요구와 그러한 요구에 적합한 정보자원은 서로 겉돌 수밖에 없게 된다. 두 요소를 연결해 주는 논리적 경로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도서관목록은 자료를 찾기 위한 단순한 검색도구가 아니라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의 지식 체계를 변화시켜 주는 첫 번째 경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고도의 지력을 요구하는 편목 업무가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단순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작업으로 폄하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이 도서관으로 도입되면서 편목 업무의 홀대 현상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이용자의 지식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관문이 아니라 소장자료에 대한 관리 도구요, 기초적인 탐색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그 결과, 편목 업무는 아웃소싱의 첫 번째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외부에서 만들어진 목록을 구입하는 행위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어찌하여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사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결국 목록을 생산하는 사서들에게 돌아간다. 대부분의 편목사서들조차 도서관목록의 본질적 가치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편목사서들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에서도 여실히 입증되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의 편목사서들은 그들이 생산해 내는 목록의 궁극적인 가치가 이용자의 지식수준을 고급화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서관목록을 생산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편목사서들이" 도서관의 소장자료를 관리하거나 검색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지적 도구'라는 인식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본질적 가치에 대한 왜곡은 도서관 근무 경력이 오래된 중견 사서들에게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그들에게 도서관목록은' 소장자료의 리스트'에 불과하였다.[4] 실정이 그러하기에, 시장논리와 효율성을 앞세우며 편목 업무의 아웃소싱이나 외부목록의 구입을 주장하는 도서관 경영진의 논리 앞에 편목사서들은 묵묵부답인 것이다.

도서관목록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왜곡에서 비롯된 폐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가뜩이나 質보다 量을 중요시하는 도서관의 신자유주의 경영논리를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로 인해 목록의 생산정책 또한 질보다는 양 위주로 변질되고 있으며, 편목사서들은' 서지데이터'를 주어진 형식에 따라 입력하는 단순반복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각자에게 할당된 작업량과 완료 기한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 편목 업무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배양하여 목록의 내용적 품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에는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처럼, 편목사서들이 정보자원과 이용자를 중개하기 위한 정보중개자의 역할은 고사하고' 뒷방'에서 서지 데이터를 정해진 포맷에 따라 입력하는' 서기'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 보니, 도서관목록은 살아있는 지식의' 유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죽은 지식의' 보관'을 위한 리스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도서관목록의 가치에 대한 왜곡 현상'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점은' 가치에 대한 왜곡'의 저변에는' 개념에 대한 오해'가 짙게 깔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서 도서관목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명확

4)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12명 중 18명(16.1%)이 이와 같은 답변을 하였는데, 이들의 평균 근무경력은 18년으로서 전체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해진다. 여기서, 목록은' 일정한 체계에 의해 작성된 자료의 리스트',' 일정한 체계에 의해 작성된 특정 주제에 대한 자료 리스트', 혹은' 특정 도서관의 소장자료 리스트'로 정의된다(사공철 외 1996). 이처럼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서관목록은' 자료에 대한 일람표'에 불과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어찌 이러한 교육을 받은 현직 편목사서들이 도서관목록의 본질적 가치가' 도서관이용자의 지식 체계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듯 도서관목록의 본질적 가치는 물론이고 기본적 개념에서조차 오해가 있다보니, 도서관목록의 품질에 대해서도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편목사서들은 품질이 열악한 목록을 생산하고 있으면서도' 품질이 열악하다는 사실'조차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생산된 도서관목록이 막상 도서관의 이용자들로부터는 외면 받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과정에서 목록생산자와 목록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이러한 괴리는 명확히 나타났다.[5] 편목사서들은 그들이 생산한 목록의 품질을'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목록이용자들은' 보통보다 못하다'고 평가하였다.[6] 이러한 차이는 목록의 형식보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확연하게 나타났다. 편목사서들은 목록의 내용이' 보통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 목록이용자들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용자들은 목록의 내용이 빈약함을 지적하고 있는데, 편목사서들은 그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도서관목록의 가치에 대한 왜곡과 개념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 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과 오해의 저변에는 편목 업무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형식주의'에 대한 집착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 3.3.2 전통적 형식주의의 함정

우리의 도서관목록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형식'에 대한 집착이다. ' 형식(format)'은' 내용(content)'과 대립적인 의미로서, 내용이 알맹이라면 형식은 알맹이를 담는 틀로 이해할 수 있다. 내용과 형식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내용은 형식을 통해서 전달되며, 형식에 따라서 내용의 의미와 가치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형식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모양새를 갖추는데 급급해져 오히려 내용의 자유로운 표현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문헌이라고

5) 앞서 설명하였듯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목록생산자와 목록이용자들에게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목록의 품질을' 형식과 체제' 그리고' 내용과 속성'으로 구분하여 5 Likert scale에 따라 평가해 달라는 질문을 하였다(매우우수: 5점, 우수: 4점, 보통: 2점, 미흡: 1점, 매우미흡: 0점).

6) 편목사서들은 목록의' 형식과 체제'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평균 3.79점을,' 내용과 속성'에 대해서는 평균 3.63점을 주었다. 반면, 목록이용자들은 前者에 대해서는 평균 3.01점을, 後者에 대해서는 평균 2.38점을 주는데 그쳤다.

하는 물리적 실체를 대체(surrogating)하고자 만들어진 도서관목록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도서관목록은 전통적으로 문헌의 외형적 속성과 내용적 속성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도서관목록은 문헌의 외형적 특성을 기술하는' 기술목록(descriptive cataloging)'과 문헌의 내용을 명시적이고 함축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주제목록(subject cataloging)'으로 발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자를 위해서는' 서지통정(bibliographic control)'의 개념이, 후자를 위해서는' 지적통정(intellectual control)'의 개념이 개발되면서 도서관목록이 갖추어야 할' 형식성'을 추구해 왔다(Hill and Intner 2002). 즉,' 서지통정'에서는 다양한 기술원칙에 의거하여 문헌이 지닌 외형적 특성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엄격히 통제하여 왔으며,' 지적통정'에서는 문헌의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용어들을 통제하면서 가시적인 표현 양태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형식에 대한 통제가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편목의 성격은" 엄격한 형식에 따라 물리적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데이터를 정확하게 재현시키는 것" 혹은 " 정해진 형식에 맞게 자료의 외형적 속성을 단순히 타이핑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목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때도 대부분' 형식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편목사서들의 의식 속에 목록은 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하다는' 선입견'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 목록의 형식이 목록이용자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은 자리 잡을 공간조차 없는 것이다.

도서관목록에서 형식주의가 강조되어 온 이유는 도서관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주지하다시피, 전통적 도서관은' 도서'를'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었으며, 전통적 도서관의 체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 즉 사서중심의 관리체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기서, 도서관목록은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였다. 도서관이용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용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다. 도서관목록은 도서의' 이용'보다는' 관리'에 비중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정보자원의 양적 증가와 도서관에 불어 닥친 재정적 위기는 도서관목록의 형식주의를 심화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편목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면서 편목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었다. 가장 인기가 있었던 방안은 여러 도서관이 공동으로 목록을 생산하여 공유하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도서관계는 동일한 편목 기준을 적용하여 통일된 형식의 목록을 생산함으로써 편목 업무에 투자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편목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은 크게 제고되었다. 그러나 얻은 것만큼 잃은 것도 많았다. 무엇보다도 개별 도서관의' 자율성'이 위축되었고, 목록의 토착성(혹은 고유성)이 상처를 입었다. 도서관마다 이용자의 목적

과 요구가 다양할 수 있고 따라서 도서관 목록이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목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도서관목록은 일정한 형식을 갖춘 획일적인 생산품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도서관목록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는 목록의 '표준화'가 국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면서 더욱 강화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국가 간의 서지 정보의 유통을 위해 목록의 형식을 표준화하는 작업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형식은 물론이고 내용에 있어서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있던 구미의 목록과는 달리 우리의 도서관목록은 기초에서부터 너무도 부실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국제적 표준을 쫓아 가려다보니, 우리는 형식 그것도 최소한의 형식적 조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도서관이 문화의 산물인 것처럼 도서관목록 또한 문화적 특성이 농후하다. 도서관목록에는 목록을 만들어낸 사회의 고유한 철학과 가치 그리고 지적 행태가 그대로 녹아 있다. 목록의 형식 또한 그러한 전통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문화가 일천하다보니 우리는 우리의 토착적인 형식을 개발하기에는 역량이 너무도 부족하였다. 그러다보니 국제화라는 미명 하에 서구의 목록형식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구미의 형식주의를 제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여, '형식주의 껍데기'만을 수입한 꼴이 되고 말았다.[7]

이처럼 도서관목록의 형식주의 자체를 '부실'의 원인으로 보려하기 보다는 우리의 도서관목록이 형식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무엇이든 적절하면 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 되는 법이다. 껍데기만의 형식주의가 우리 도서관목록의 주요한 특성으로 자리 잡으면서, 우리의 편목 업무는 왜곡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단계 우리 도서관목록의 품질을 검증해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의 편목사서들은 '표준화된 형식에 맞게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을 편목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이 생산해낸 목록에서는 형식적 오류나 표기의 오류가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쪽짜리 형식주의에 젖어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도서관목록은 내용적 유용성은 물론이고 형식적 완전성에서도 이용자들로부터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도서관목록이 반쪽짜리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저하시키는 일차적 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도서관계가 그동안 시행해온 목록정책의 근시성은 유용성 저하를 고착화시켜온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도서관목록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방안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목록의 양적 팽창만을 추구하는 '성장주의'에 너무도

7) 이처럼 우리 도서관목록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형식주의는 구미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목록 체제를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목록에 내재하는 철학이나 원리에 대한 진지한 성찰조차 없이, 외형적 모양새를 모방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였다.

집착해 왔다. 그러다보니 우리 실정에 적합한 토착적인 목록형식과 기술규칙조차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도서관이 용자들이 도서관목록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구미의 형식과 규칙에 종속적이 되다보니 그곳의 변화를 따라가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철학적 그리고 문화적 기반을 상실한 편목 업무는 더 이상 지적 작업이 될 수 없다. 편목 업무의 경시 풍조는 도서관 내부에서조차 확대되고, 그러다보니 도서관목록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은 실종되고 형식이라는 껍데기에 더욱더 매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 4. 유용성 제고를 위한 전략과 방안

### 4.1 편목 정책과 관련하여

이 연구의 과정에서 연구자가 만나본 편목사서들은“ 우리의 도서관목록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는 국가 차원의 편목 정책이 부실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편목체제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계획과 실적 위주의 정책에 떠밀려 가고 있으며”,“ 우리가 생산한 도서관목록이 이용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근본 이유는 편목 업무에 대한 경시 풍조와 유명무실한 편목 정책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우리의 실정에 맞는 목록형식이나 기술규칙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단위 도서관의 편목사서들이 목록의 질이 아닌 양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도서관정책이 버젓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도서관목록의 품질이 어떻게 우수해질 수 있겠느냐는 反問이다.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 도서관목록의 품질 저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편목 정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하였던 관계 당국과 문헌정보학계 그리고 도서관계의 공동 책임에서 비롯된다.[8] 따라서 비록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편목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지금부터 우리의 도서관 실정에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편목 정책에 대해 궁리해 보고자 한다.

#### 4.1.1 편목 교육제도와 내용의 혁신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편목사서의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와 관련된다. 교육은 업무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편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된‘ 부실한’ 목록이 가져올 결과를 생각해 볼 때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이처럼 편목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는 체계적이어야 하며 교육내용은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제도는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갖춘 편목사

8) 그렇다고 해서 실무를 담당해온 편목사서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도서관목록의 유용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는 제대로 된 편목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공감할 뿐이다.

서를 양성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또한 편목사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연구는 적지 않게 발견된다. 특히, 사서직의' 전문성' 논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논의거리 중 하나가 바로 문헌정보학 교육제도에 관한 것이다." 학문 틀거리의 재정향"을 논의하고 있는 김정근(2000)의 글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찾아볼 수 있다. 이론보다는 실기를 중시하는' 기능주의적'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보니, 신참 사서들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편목사서에게 요구되는 이론적 기반이 허약하다. 이러한 신참 사서를 받아들인 도서관에서는 편목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새로이 교육을 시키느라 애를 먹는다. 이렇듯 모순된 인력 양성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서교육제도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의 편목 교육은 도서관목록이라는 도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능적 지식을 주입하는데 치중하였고, 특히 목록규칙의 적용이라는' 반쪽짜리 형식주의'를 집중적으로 숙지하게 하는데 할애되었다.[9] 당연히 이론과 실무 사이에 적절한 조율도 없었고, 철학과 이론을 겸비한 편목사서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현장의 요구를 교육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교육이 항상 현실에 뒤쳐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이르렀다(정연경 2000). 이처럼 지식 기반이 허약하다 보니 학문의 영세성과 편협성은 심화되어 가고 교육의 체계성은 더욱 피폐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듯' 원칙과 뼈대 세우기'에 실패한 우리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는 지금 디지털로 대변되는 새로운 도구의 유입에 당면하여 또다른 갈등과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껍데기를 추종하기에 급급하여 알맹이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도서관이용자를 돌아볼 여유를 더욱 잃어가고 있다(이제환 2003).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도서관목록이 부실하게 된 책임을 어찌 현장의 편목사서들에게만 물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모순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기능'과' 기술'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철학과 원리'를 중요시 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도서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보다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원리'를 터득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기능주의 교육은 당장의 도서관 요구를 충족시켜 줄지는 몰라도, 단편적이고 단기적이며 수동적인 지식만을 주입하여 궁극적으로 서지 데이터를 입력

9) 편목 교과목은 문헌정보학 교과목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적용과 경험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말려져 있다. 실무 위주의 교육을 통해 도서관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편목사서를 배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의 실용성과 적용성을 강조하다 보니, 실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목록규칙이나 분류 시스템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다보니 교육수요자들은 교과목에 대한 흥미를 별로 가지지 못할 뿐 아니라 다양한 응용력을 겸비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기능인'을 양성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10] 더욱이, 사서의 양성을 위해 할당된 교육 시간은 점차 축소되고 교육해야할 내용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의 기능주의 교육의 효과는 의문이 증폭된다. 이제는 목록의 기본 원리를 완벽하게 터득함으로써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다양한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사서를 양성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적이고 형식적인 자료관리 방법에 치중하던 기존의 편목 교육에서 벗어나서 무질서한 정보세계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능동적인 과정으로서의 편목을 인식하게 만드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료가 아닌 이용자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관리하는 방법보다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11]

이에 더해, 도서관 현장의 편목사서들이 ' 전문성'을 보강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편목 업무는 경직된 구조(format)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 아니다. 편목사서는 도서관목록을 통해 이용자의 지식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전문가'이며, 편목 업무는 이러한' 전문성'을 그대로 표현해 내는 과정이다. 전문성을 유지하고 개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이러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가 바로' 재교육' 과정이다.

대학에서의 편목 교육이 폭넓은 이론적 기반을 쌓아 다양한 적용 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면, 재교육 과정에서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능'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과 원리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토대로 실무와 현안 중심의 경험을 쌓아갈 때 전문성을 갖춘 편목사서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편목 교육과 도서관 현장에서의 재교육 과정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12] 그러기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재교육이 아니라 현장의 편목사서가 필요로 하

10) 기능주의 교육은 교육의 철학적 기반을' 결정론적 세계관(physical paradigm)'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물리적인 특성과 그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직· 배열하는 방법을 중시한다. 그 결과, 교육내용이' 이용자'보다는' 자료'에, 그리고' 서비스'보다는' 관리'에 치중되게 된다.

11)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도서관 현장의 실무자들은 오히려 실무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도서관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서를 배출해 줄 것을 교육기관과 교육주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가령, 일부 사서들은 이론 위주의 편목 교육이 도서관 현장에 필요한 편목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서교육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이론 교육을 강화고자 하는 문헌정보교육계를 심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 특히 대학교육의 목적이 단기적 기능의 숙지보다는 장기적 인지력의 강화에 있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주장은 지극히 단견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현단계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편목' 기능'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숙지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데, 이는 편목사서 나아가 사서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적인 행태에 다름없다.

12) 편목사서와의 면담 과정에서, 한 사서는 현재의 재교육이 아주 기초적인 수준만을 맴돌고 있으며 그들이 실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 중에서도 개별 사서의 배경지식과 교육경력을 배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직급별로만 구분되어 실시되는 획일화된 교육방식은 그들이 필요한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규

는 지적 충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교육내용을 체계화하여야 하며, 교육프로그램도 업무의 현안에 따라 그리고 피교육자의 능력과 직급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하여' 맞춤식'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더불어, 단기적 교육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편목담당 전문 사서가' 제대로' 양성될 수 있도록 재교육 과정의 이수를' 의무화'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이처럼 도서관목록의 유용성 제고는 목록을 생산해 내는 주체들을 제대로 교육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편목사서의 교육문제에 대해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 그리고 협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학계에서는 적절한 교육방법과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 현장의 요구가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서관협회는 이론과 실무 사이에 적절한 조율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야 한다.' 3 주체'가 합의하고 공동으로 노력할 때 비로소 편목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제도가 수립되고 교육내용이 개발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서관목록의 품질을 도서관 선진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4.1.2 목록 품질관리기구의 설립

주지하다시피 정보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편목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무질서한 정보세계에 질서를 부여할 책무를 지고 있는 편목사서들의 혼돈과 갈등 또한 가중되고 있다. 편목사서들은 목록의 생산과정에서조차 신자유주의 경영논리를 펼치는 도서관경영진 앞에서 움츠려들고 있고, 기존에 다루어 왔던 것과 전혀 다른 디지털 정보자원 앞에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관 내부의 상황과는 달리, 새로운 정보환경에 이미 익숙해진 도서관이용자들은 도서관목록이 포괄적인 서지도구이자 검색도구로서 다양한 기능을 갖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우리 도서관계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대안을 마련할 만한 능력도 문제해결에 필요한 인력도 우리에겐 너무도 부족하다. 도서관 현장의 편목사서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책의 마련이 좀처럼 쉽지 않다. 단위 도서관별로 혹은 여러 도서관이 공동으로 합심하여 어려운 국면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

이러한 어려움은 당면한 품질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가려내어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는데 있어 절실히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우리 도서관계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기된다. 이렇듯 우리에게 시급한 일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도서관들은 관내 사서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한다. 가령, 직원세미나, 전문가초빙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해외직원 연수 등이 그것이다.

도서관목록의 품질을 제고하고 유용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실무 기구'를 구성하여, 편목 정책과 실무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공식적인 기구를 만드는 일이 절실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실무 기구'는 밖으로부터의 요구에 기초하여 안으로부터의 개혁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나아가 단위 도서관의 상황과 요구를 도서관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하는' 허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기구이어야 한다. 지식경영의 대가인 노나카 이쿠지로 교수는 이러한 방식을' Middle-up-down' 방식이라 표현한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조직관리 및 변화의 방식으로서 기존의' top-down'이나' bottom-up' 방식과는 달리, 중간 연결층의 역할 강화론에 입각한 새로운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노나카 이쿠지로 1995).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기구는' 현직' 편목사서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의 편목사서들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목록의 품질을 스스로 관리하기 위한' 조정'과' 통제' 기능을 갖게 된다면, 도서관목록의 유용성 확보는 보다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13]

이러한' 목록품질관리기구'가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면, 편목정책의 결정부터 실행과정까지 현직 편목사서들이 직·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각종 편목정책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각종 편목 기준과 원칙을 의결해 나갈 수도 있다. 가령, 편목사서들은 현단계 도서관목록의 품질이 저하된 근본 원인 중 하나가' 質'보다' 量'을 위주로 한 구축 전략에 있다고 말하여 왔다. 국가가 나서서' 구축된 레코드의 양'을 도서관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도입하고 지원예산을 분배하기 위한 근거로 삼고 있으며, 도서관경영진에서는 편목사서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1일 처리 건수'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앞장서고 도서관경영진이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 부실한 목록을 수정하거나 품질이' 우수한' 목록을 생산하는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평'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공식적

13) 목록규칙의 개정이나 목록형식의 개발, 그리고 종합목록의 운영과 같이 특정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나' 협의회'는 그동안 다양하게 존재해왔다. 가령, 한국도서관협회의 「목록분과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국문헌자동화목록운영협의회」,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종합목록 운영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특별한 목적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시류에 따라 편성되는 것에 불과할 뿐, 목록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집행과 이를 통한 목록의' 품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실무담당자들보다는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나 도서관 관리자들로 이들 위원회나 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는 점에서 편목사서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따라서 목록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는 현직 편목사서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4) 편목사서와의 면담과정에서 이러한 하소연은 심심찮게 접할 수 있었다. 그 중 일부를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지금 체계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태에서, 더구나 목록입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없이, 완료기한에 대한 압박감으로 경쟁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위에서는

인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편목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뿐 아니라 목록의 생산과정에서도' 목록 품질관리기구'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가령, '표준성'을 강화하고 목록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중앙조정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목록의 유용성 확보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서지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단위 도서관에서 생산된 목록이 일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실무 기구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기존의 획일화된 형식을 탈피하여 도서관의 유형이나 형태에 맞춰 목록의 수준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할 수도 있다. 도서관마다 이용자의 목적과 요구가 다양하다면 그에 따라 목록에 수록되는 내용과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 기구는 목록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의결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무 기구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면, 단위 도서관에서는 서지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데이터 입력에 들이는 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목록의 내용을 심화하는' 지적' 작업에 보다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목록의 품질을 고급화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유용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4.1.3 형식적 완전성을 위한 체제 정비

서지데이터를 단순히 입력하는' 노동'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편목사서들이 공통적으로 꿈꾸고 있는' 이상적인' 편목체제가 있다. 중앙집중형 편목체제(centralized-cataloging)가 그것이다. 편목사서들은 지루한 편목 업무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어, 업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관경영진이 바라는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앙집중형 편목체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전체 도서관계에 적용되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단위 도서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단위 도서관들과의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정책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단위 도서관의 비협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도서관계의 현실과 분위기를 고려할 때 특정 기관에 이러한 권한과 임무를 전폭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그리 녹녹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적 차원의 편목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일 또한 여의치 않다. 국가 도서관이 둘씩이나 존재하고 있고 도서관들의 편목관행과 방식이 천차만별이며, 특히 도서관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기구조차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중앙집중식 편목 방안은 1970년대

---

재촉하고, 여기서는 인원부족으로 여력이 없다. 이용자들을 배려하여' 주제어'도 넣고 세심하게' 지적' 작업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자료만 쌓일 뿐 누구 하나 잘했다고 하는 사람 없다. 그러다보니 저자나 서명, 출판사 등 4~5개의 데이터만' 오자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끝낸다. 시간적 압박감과 업무과중으로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고, 지금 이 부서는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가 되어 버렸다." (J대학도서관 정보지원과 정리계 주무사서와의 인터뷰: 2003. 1. 16. 15:00~16:40)

미국을 중심으로 국가 단위의 도서관 네트워크에 대한 가능성이 전망되면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다. 즉, 지금 국내 편목사서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아예 중앙에서 집중적으로 목록을 생산한 후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적인 서지 DB를 구축하자는 열망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방안은 오랜 기간동안 상당한 논쟁거리로 대두되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표준화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에는 국가적 차원의 생산 및 관리 체제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단위 도서관의 특성과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의 편목 정책은 정책의 일치점을 찾기 어려운 국가 차원의 '완전집중형'(centralized)보다는 자율성이 보장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비집중형'(decentralized) 혹은 '분산형'(distributed)으로 회귀하게 되었다(Segal 1985). 이러한 사례는 'distant governance' 혹은 'distant governors'에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기반을 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려면, 우리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체제를 보다 깊숙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근자에 들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정보유통체제의 확산은 분담편목(shared-cataloging) 방식을 대중화시키고 있다. 분산체계로 공동목록 DB를 구축하여 단위 도서관이 목록 생산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단위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이용효율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국가자료공동목록 DB'와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종합목록 DB', 그리고 과학기술분야 전문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UNION DB' 등이 있다. 그러나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이 원활한 협조관계를 구축하는데 그리고 체계적인 구축전략을 수립하는데 실패하면서 공동목록 DB는 지금 품질 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質보다 量 위주의 정책과 DB 구축에 앞서 원칙과 기준의 설정이 명확하지 못했던 점, 구축과정이 체계적이고 일관적이지 못했던 점, 그리고 구축된 DB에 대한 평가와 관리체계가 미약했던 점등이 품질을 열악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이제환 1997).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 도서관목록은 중앙집중식 편목체제나 분담편목방식을 시도하기에 '원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목록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목록형식과 데이터 기술원칙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내용은 물론이고 형식에 있어서도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는 목록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한 결함은 목록을 생산한 편목사서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목록형식이나

기술규칙의 미비로 인한‘ 제도적’ 오류에서 비롯되고 있었다.[15] 카드목록을 전제로 한, 더구나 관련 규칙이 미비한 상태에서 출간된 우리의 편목기술규칙(KORMARC과 KCR)에 대한 보완 작업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야 비로소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결함이‘ 원초적’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입증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도서관목록이 형식적 완전성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초 도구’를 완벽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불완전한‘ 목록형식’과‘ 목록기술규칙’을 정비하고[16], 아직까지 미완성된‘ 주제명’과‘ 전거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보자료에 수록된 서지 데이터를 적절히 담을 수 있는 구조와 정보자료에 포함된 내용을 적절히 제시할 수 있는 원칙을 확고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용자들이 도서관목록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가를 사전에 철저히 파악하는 작업이며, 이용자 요구에 근거하여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토착적인 목록형식을 개발하는 일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도서관목록은‘ 원하는 자료를 포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그리고‘ 검색된 결과 중에서 적합한 자료인지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치’로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우리의 편목사서들은 형식으로 인한 혼란에서 벗어나 내용의 유용성을 확보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 4.2 실무 방안과 관련하여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편목 정책뿐만 아니라 단위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한다. 도서관목록의 유용성 제고는 국가기관과 단위 도서관 그리고 실무를 담당하는 편목사서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때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다. 편목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정책기관 혹은 국가대표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실무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단위 도서관이나 편목사서의 실천 의지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실무 방안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첫째는 편목사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위 도서관의 역할과 관련되며, 둘째는 목록의 내용적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편목사서의 역할과 관련된다.

#### 4.2.1 단위 도서관의 역할

편목 업무는 단위 도서관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조직형태에서 수행되고 있다.‘ 정리과’와 같이 독립된 부서에서 전담하는 경우도 있고,‘ 정리계’,‘ 정리실’,

15)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편목사서들은 목록의 유용성이 저하된 원인이 전적으로 표준화된 형식과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데 있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는 목록형식과 목록기술규칙에서의‘ 표준화’가 이루어진다면 도서관목록의 품질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신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16) 현재의 목록형식 및 목록기술규칙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편목사서들이 요구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통일성 확보, ② 내용의 간소화, ③ 적용의 유연성, ④ 표준화 제정, ⑤ 최신성 유지.

' 정리팀'과 같이 업무 중심의 TFT(task force team)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17] 편목 업무는 자료의 이용에 대비하여 수집 자료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도서관이용자와의 직접적인 대면은 거의 배제된다. 따라서 업무공간이 이용자의 시선이 잘 안가는 건물의 안쪽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업무환경으로 인해, 편목사서는 도서관 내부에서조차 종종' 내성적이며 수동적인 또는 재미없는 사람들'로 묘사된다.

전통적인 환경에서의 편목사서는 목록의 기입형식에 따라 내용을 기술한 후 생산된 목록을 배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다. 따라서 편목사서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복잡한 목록규칙과 표준에 익숙하고 상세한 절차들을 엄격히 준수하고자 하는 자세였다. 그러나 도서관업무의 자동화가 추진되면서, 편목사서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크게 변화하였다. 온라인 목록시스템의 도입과 서지 네트워크의 발달은 편목사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편목사서들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database maintainer)나 데이터 기입 담당자(data entry operator), 시스템 프로그래머(systems programmer) 혹은 시스템 분석가(system analyst)로서의 자질 또한 갖추기를 요구받고 있다(노옥순 1995). 이처럼, 정보환경의 변화는 편목사서로 하여금 편목에 대한 기능적 지식만이 아니라 편목의 원리에 대한 이해, 나아가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목록이용행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겸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고도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 편목사서는 자기계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자기계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계발은 편목사서의 관심과 의욕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기계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직의 분위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 도서관의 조직분위기와 관행이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이에 더해, 우리 도서관의 고질적인 관행인 잦은 부서이동은 편목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보직순환제'가 보편적인 현상이다.[18] 편목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도서관이 거의 없다보니 우리의 단위 도서관에는' 편목전문사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편목 업무를 일시적으로 담당하는 사서가 있을 뿐이다.[19] 이러한 인

17) 편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팀의 명칭은 다양하다. 과거에는' 정리'라는 용어가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자료개발',' 자료운영',' 정보개발',' 정보지원' 등으로 명명되고 있다.

18) 앞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내 23개 대학도서관의 부서이동 주기는' 평균 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 미국도서관협회의' 사서채용' 광고를 보면, 국내의 상황과 달리 직무별 전문사서를 모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편목사서에 대한 채용정보에는' catalog librarian',' cataloger',' cataloging librarian',' technical service librarian', 그리고' Faculty Director, cataloging department'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사방식 내지는 보직제도는 한 업무 혹은 한 부서에 오랫동안 머물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행정조직의 관행에서 비롯된다. 보직순환제는 개인이 업무의 타성에 젖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점을 지닌다. 그러나 일반 행정직을 제외하고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직의 경우 보직순환제를 시행하는 직종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보직순환제는 직업 종사자가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근본적인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인사 관행으로 인해 우리 도서관에서 편목' 전문' 사서를 양성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일정 수준의 지식과 경험이 쌓일만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되고, 다른 부서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후 편목 업무를 다시 맡게 되면 그동안 망각한 경험적 지식을 되찾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다보니 고급 지식과 능숙한 경험을 갖추고 도서관업무를 추진해 나갈 명실상부한 운영주체를 우리 도서관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다. 사서들이 맡아하는 일은 있으나 업무는 없으며 직장인은 있으나 전문사서는 없는 것이다.[20] 더욱이, 신참 사서를 이끌어줄 자질과 능력을 갖춘 고참 사서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도서관의 현실을 돌아 볼 때, 우리의 도서관목록이 품질의 개선은 고사하고 품질의 저하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당연한 결과임을 인식하게 된다.[21]

이러한 인력 운영 및 개발의 구태에서 벗어나려면, 편목을 전담하는 사서를 양성하고자 하는 단위 도서관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위 도서관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편목사서의 능력 향상을 독려하고, 이를 통하여 편목 업무의 개선과 목록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현재의 보직순환제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하며, 신참 사서를 고용할 때 처음부터 커리어의 트랙을' 자료조직' 분야로 지정하여 개발하게 하는 과감한 인사정책의 변환이 필요하다. 그러한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편목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편목전문사서'로서 키워나갈 수 있

채용당시부터 업무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전문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말 수 있다. (ALA," American Libraries : Hot Job Online", http://www.ala.org)

20) 김정근(1995)에서 저자는 우리 대학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운영주체의 부재현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즉, 우리 도서관의 인적 구조 속에는 대학총장-도서관장을 축으로 한 리더쉽 구조의 허위성과 전문직임을 자처하는 사서직 사람들의 낮은 기량이 서로 어떤 타협점을 찾아 안정선을 구축한 듯한 모순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의 구조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해결방안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21) 편목 업무를 처음 또는 새로 담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선임 사서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조사에 의하면, 길게는 1개월, 짧게는 1주일 정도 업무소양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임 사서의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업무구조상 교육을 받는 사서들의 업무수행능력은 선임 사서들의 지식수준과 교육내용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야 한다. 조직의 구성원이 전문성을 갖추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때, 조직의 생산성은 물론이고 조직의 대외적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음을 우리 도서관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은 깊이 되새겨야 한다.

4.2.2 편목사서의 역할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나본 도서관이용자들은 물론이고 편목사서들조차 우리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용의 빈약함'을 보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용자들은 특히 목록이 제공하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를 탐색하거나 선정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러한 불만을 지니고 있는 도서관이용자들은 도서관목록보다는 상업적인 서지DB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경향이 짙었고, 이들에게 도서관목록은 특정 자료의 소장여부와 소재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단순한 서지 도구에 불과하였다. 우리 도서관목록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내용적 한계'는 앞서 실시하였던 품질검증에서도 여실히 입증된 바 있다. 우리의 도서관목록은 자료의 고유한 특성과 내용 그리고 연계 정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원자료에 대한 대체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의 도서관목록이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다소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서관목록의 내용적 유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목록의 형식과 기술에 대한 '표준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준화된 형식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형식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작업에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과 노력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목록의 내용을 보강하는 작업에는 관심조차 갖기가 힘들게 된다. 형식의 표준화 작업이 선결될 경우 기본적인 서지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혼란을 최소화하게 되고, 나아가 도서관 사이에 서지 데이터의 실질적인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단위 도서관들이 서지 데이터 입력에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형식의 표준화와 편목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단위 도서관에서는 목록의 내용을 보강하는데 좀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편목사서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형식의 표준화를 완성하지 않고는 단위 도서관들이 생산하는 목록의 내용을 보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서관목록의 '품질 고급화 방안'의 기본 철학은 단위 도서관의 '고유성' 강화에서 찾아야 한다. 도서관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다를 수 있고,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다르다면 도서관목록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과 깊이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서관목록에 수록될 내용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적합하게 보완되어야 한다. 형식의 표준성을 유지하되 이용자 커뮤니티의 특성과 요구에 부합하게 내용의 고유성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편목의 원칙이 변화할 때 우리 도서관목록의 내용적 유용성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제목록을 제작하되 주제어의 상세성과 망라성을 이용자 커뮤니티의 수준에 적합하게 조율한다거나, 자료의 목차나 초록 등은 물론이고 전문가의 리뷰 등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더해, 학술적 커뮤니티의 경우 자료에 포함된 참고문헌 혹은 인용문헌에 상세한 분석을 통해 주제적으로 연관된 다른 자료들과의 서지 관계를 설정해 주는 작업 또한 가능할 것이다. 도서관목록의 고급화는 기존 기능의 강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의 추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도서관목록의 내용적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양하다. 문제는 이러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편목사서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그러한 방안을 실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실무자의 자질과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방안이라도 결국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목 담당'사서 개개인의 자기계발 노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하다. 도서관 현장의 편목 담당' 사서들이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재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편목 업무에 요구되는' 고유의 전문성'을 계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 한, 아무리 편목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우리 도서관목록의 품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우리의 편목사서들이 편목의 철학과 이론을 숙지하고, 이용자연구를 통해 그들의 이용자들이 도서관목록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도서관목록은 비로소'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지적 도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5. 결 론

이 연구는" 그동안 우리 도서관이 만들어온 목록은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우리의 도서관 사서들은 정보환경의 변화와 이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목록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 나아가 네트워크 상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서들이 만들어온 목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궁금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의문과 궁금증을 체계적으로 파헤쳐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편목 업무를 무질서한 정보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기에, 따라서 도서관목록은 정보의 바다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이 고급 정보에'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지적 도구'라고 믿고 있기에 우리가 만들어 온 도서관목록이 과연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도서관목록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 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우리의 도서관목록은 전통적인 틀에 얽매어 새로운 환경

에 적합한 형태로 거듭나는데 실패하고 있었으며, 편목 과정에 목록이용자의 관점보다는 여전히 목록생산자인 사서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목록의 내용보다는 형식에 집착하는 분위기와 행태가 편목 업무의 모든 과정에 진하게 배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용자가 느끼는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은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도서관목록의' 존재 가치'와 편목 업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접하면서, 연구자는 목록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지금까지의 정태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목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행태'에 주목하면서 도서관목록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도서관목록이 이용자들에게 진정한' 접속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점에서' 유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목록이 추구해 왔던 목록생산자와 목록전문가의 관점에 집착하던 관행을 지양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유용성을 증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목록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한' 지적 도구'로서 탈바꿈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 결과는 향후 도서관목록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데, 더불어 현행 도서관목록의 구조와 내용을 재고하는데 기초적인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김정근. 1995.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한울.

김정근. 2000. 『우리 문헌정보학의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대구 : 태일사.

노옥순. 1995. 정리사서의 역할변화와 업무재편에 관한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12(2) : 68.

노지현. 2003. 유용성의 관점에서 본 도서관목록의 품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2) : 107-134

사공철 등편.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이제환. 1997. 『분산체계로 구축된 통합 DB의 품질검증 및 개선을 위한 연구』. [대전 : 연구개발정보센터].

이제환. 2003. 다시 생각해 보는 사서직의 전문성. 『한국문헌정보학회 학술발표논집』, 제15집 : 94.

정연경. 2000. 디지털 환경에서의 목록교육에 관한 연구. 『國會圖書館報』, 37(4) : 17.

노나카 이쿠지로. 1995. 『지식창조의 경영』. 21세기북스.

Borgman, Christine. 1996." Why are Online Catalog Still Hard to Us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7(7) : 493.

Buckland, Michael. 1992. *Redesigning Library Service : a manifesto*. Chicago and London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Hill, Janet Swan and Sheila S. Intner. 2002. " Preparing for a cataloging career : from cataloging to knowledge management". [cited 2002. 12.24]. <http://www.ala.org/congress/hill-intner_print.html>.

Murtomaa, Eeva. 1998." The Impact of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Recommendations on the ISBD(ER)". *64th IFLA General Conference*(Aug. 16-21). <http://www.ifla.org/IV/ifla64/065-74e.htm>.

Norgard, Barbara A., Michael G. Berger, Michael Buckland and Christian Plaunt. 1993." The Online Catalog: From Technical Services to Access Service". *Advances in Librarianship*, 17 : 111.

Segal, Jo an S. 1985." Networking and Decentralization".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 : 203-231.

Svenonius, Elaine. 2001. *The Intellectual Foundation of Information Organization* MIT press.